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5. 4.4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 럽

-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홍기 난동 용의자 관광객이 제압
  - 3.29 언론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발생한 무차별 홍기 난동 사건의 용의자가 영국인 관광객에 의해 제압되었으며, 현지 당국은 용의자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신원 확인 및 범행동기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
    - ※ 언론은 암스테르담 시장이 영국인 관광객에게 영웅 배지를 수여했다고 부언
- 러시아, 푸틴 소유 추정 리무진 폭발사고 관련 암살의혹 조사 中
  - 3.31 언론은 푸틴 대통령 소유로 추정되는 의전 차량이 연방보안국(FSB) 본부 인근(모스크바)에서 화재로 파손됐으며,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암살 위협이 제기된 가운데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인을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보도
    - ※ 사고 이후 푸틴 주관 공식행사에서 연방경호국(FSO)의 몸수색도 강화되었다고 부언
- 스웨덴, SNS를 통한 극우단체들의 청소년 포섭활동 지속 증가
  - 3.31 언론은 스웨덴의 극우 극단주의 단체들이 유럽과 미국 등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, 특히 SNS에 반이민 정서와 우경화 등의 동영상 제작·게시하여 청소년까지도 회원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보도
    - ※ 전문가들은 극우단체가 성장하는 원인으로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머스크가 극우단체와 관련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등의 신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

## 미 주

### ○ 美 연방대법원, 총기 조립키트 규제 합법 결정

- 3.27 美 연방대법원은 주류·담배·총포 담당국(ATF)이 총기규제법에 따라 ‘유령 총’이라고 통칭되는 총기 조립키트 구매를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며, 「닐 고서치」 대법관은 범죄 예방을 이유로 이를 정당화했다고 발표  
※ 美 법무부는 법집행 기관들에 압수된 ‘유령 총’의 수는 2017년 1,700대 미만이었으나 엄청난 속도로 증가해 2023년에는 27,000대에 이르렀다고 부언

### ○ 美, SNS에서 테러 옹호한 사람에게 학생비자 발급 거부

- 3.29 언론은 美 국무부가 학생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대폭 확대하고 SNS 등을 확인해 테러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청자들을 배제하도록 했으며, 同 내용의 외교 전문을 지난 25일 각 영사관에 하달했다고 보도  
※ 언론은 美 정부가 이미 몇 주 전부터 하마스에 지지를 표명했던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있으며, 反이스라엘 활동과 관련해 외국인 3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부언

## 아 테

### ○ 韓, 탄핵 인용시 홍기난동 SNS 게시자 첫 ‘공중협박죄’ 영장

- 3.26 언론은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홍기를 들고 난동을 피울 것이라는 글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을 경찰이 ‘공중협박죄’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, 이는 ‘공중협박죄’가 신설된 이후 최초라고 보도

### ○ 국정원, 경주 APEC 겨냥한 테러 위협·北해킹 경고

- 3.27 언론은 국가정보원이 ‘2024년 테러정세·2025년 전망’ 책자를 발간하였으며, 同 책자에서 올해 10월 말~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테러 공격 및 북한발 해킹 시도 등의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보도

### ○ 파키스탄, 고속도로 장악한 무장세력이 외지인 5명, 군인 6명 사살

- 3.27 언론은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무장세력이 임시 초소를 만드는 등 고속도로를 장악하였으며, 지나가던 버스를 세우고 신분증 확인을 통해 탑승객 가운데 외지인 5명과 군인 6명을 선별해 낸 후 사살했다고 보도

## 케냐 가리사 대학교 총격 테러

- '15.4.2 케냐 북동부 가리사 대학교에서 소말리아 무장조직 「알샤바브」 조직원들이 테러를 자행, 148명\*이 사망하고 부상자 80명 발생
  - \* 기독교인 학생 142명, 군인 3명, 경찰 3명
- 이들은 정문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후 캠퍼스 內 난입하여 기독교 학생들이 모인 기숙사 방을 급습, 인질극을 벌이며 총기를 난사
- 케냐 정부軍과 경찰은 15시간 넘게 인질극을 벌이던 테러범 4명을 현장에서 사살하고, 테러 용의자 5명을 추가로 체포
- 「우후루 케냐타」 케냐 대통령은 同 사건을 '잔인하고 비열한 행위'라고 규탄하며 테러범을 소탕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 작전을 지시
  - 이에, 4.6 케냐 공군은 전투기를 동원하여 소말리아 접경지역에 위치한 「알샤바브」 거점 2곳(곤도도웨·이스마일 캠프)을 폭격
- 同 사건은 '98년 나이로비 美대사관 알카에다 차량폭탄테러(213명 사망) 이후 케냐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

## 테러 단체

### < 알샤바브(AS) >

- (목표·결성) 소말리아內 외세 축출 및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'06년 결성
  - \*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08.3), 영국·캐나다('10.3)
- (주요인물) 지도자 「아흐메드 우마르」, 부사령관 「마하드 카라테」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(AQ, AQAP, AQIM), 보코하람
- (활동지역) 소말리아 쏘域 및 케냐內 소말리아 접경지역
- (주요테러) '19.7 모가디슈 시청 회의실 자폭 테러(시장 등 고위간부 8명 사망)  
 '18.11 모가디슈 내무부 청사 차량폭탄·총격 테러(사망 58명, 부상 106명)  
 '17.10 모가디슈 사파리 호텔 등 차량자폭 테러(사망 276명, 부상 300여명)

